

SESSION 8

Esther (Part II) 에스더 (2부)

Session summary

In this session, we continue the story of Esther, in which God's good purposes for His people led to a radical reversal. The humble were exalted, those who were condemned received salvation, and those expected to suffer defeat triumphed in victory. When we read God's Word, we are reminded that God is often at work to bring about His purposes even when His people do not realize what He is doing. God calls us to look beyond earthly appearances and strength and to honor and trust Him for final victory.

세션 요약

이번 세션에서는 에스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하신 계획은 급진적인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높아지고, 정죄받던 자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종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과 힘을 넘어 최후의 승리를 위해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Scripture

Esther 6:6-11; 7:3-10; 9:1-2 에스더 6:6-11; 7:3-10; 9:1-2

The Point

God calls us to look beyond what we can see and trust in Him for deliverance.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를 바라보고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INTRO/STARTER 5-10 MINUTES

Option 1

Have you ever looked back on circumstances in your life, only to realize God was at work behind the scenes to bring about His will? Sometimes, you realize that God used a painful event or suffering to bring about good (Rom. 8:28). Other times, you realize that your good fortunes were nothing more than the grace of God poured out on your behalf, to accomplish His purposes for His glory (2 Cor. 2:8-9).

Life's various circumstances provide an abundance of opportunities to deepen our trust in the providence of God, regardless of the situations we may face. Sometimes it helps to encounter a biblical example of God's providence to remind us that He does work behind the scenes to accomplish His will. This is exactly what we've seen in the Book of Esther.

It has been said, "God is too good to be unkind and He is too wise to be mistaken. And when we cannot trace His hand, we must trust His heart." Have you ever felt like God was making a mistake regarding the circumstances of your life? If so, how did you handle that feeling? What events in your life have deepened your trust in God's wisdom?

옵션 1

인생의 상황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롬 8:28). 또 어떤 때는 당신의 행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을 위해 부어주신 은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고후 2:8-9).

인생의 다양한 상황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경적 예를 접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불친절하지 않으시고 너무 지혜로우셔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손길을 따라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 실수를 하신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삶에서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더욱 깊게 해주었나요?

Option 2

Movies and TV shows often have “Behind the Scenes” features, in which they introduce the audience to the actors, the set, and maybe a bloop reel. Going behind the scenes of a movie places the audience in the role of the creator, who can see how the movie was made. They know the theme of the movie, the outtakes, and the ridiculous lengths producers, actors, and the film crew had to go in order to capture that perfect shot.

Have you ever watched “Behind the Scenes” on a movie? What is one interesting thing you learned from that experience?

When we watch movies, we only see the end result. In the same way, there are parts of our lives that we don’t see, things set in motion in God’s plan that don’t always make sense to us. Sometimes, we might wish for a “Behind the Scenes” reel of our own lives, but if we trust in God, we will see His plan woven throughout the finished product.

Have you ever experienced something you didn’t understand at the time, but looking back you were able to see God’s purpose in that situation?

옵션 2

영화와 TV 프로그램에는 종종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는 관객에게 배우, 세트, 그리고 어쩌면 실수 장면 모음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영화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제작자의 역할을 관객이 맡게 됩니다. 관객은 영화의 주제, 삭제된 부분, 그리고 완벽한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제작자, 배우, 제작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게 됩니다.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본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최종 결과만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완성된 작품 속에 그분의 계획이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했지만, 돌아해보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었던 적이 있나요?

HIS STORY 15-20 MINUTES

THE POINT

God calls us to look beyond what we can see and trust in Him for deliverance.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를 바라보고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Characters

The Triune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Esther: raised by her cousin Mordecai, Esther was a young Jewish girl who was forced to marry a Persian King

Hamaan: a trusted advisor to the king; hated the Jewish people and plotted to have them all exterminated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에스더: 사촌 모르드개에게 양육된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젊은 유대인 소녀였습니다.

하만: 왕의 신임받는 고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증오하여 모두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Plot

As we continue in the Book of Esther, we wrap up a story that is all about God’s good purposes for His people, as seen in the radical change of events surrounding Esther and Mordecai. 에스더기를 계속 읽다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둘러싼 사건의 급격한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품으신 선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HAMAN'S PLAN AGAINST MORDECAI BACKFIRED

While the Book of Esther doesn't explicitly refer to God, the unfolding events in this story seem to be more than remarkable coincidences. In chapter 6, God's hand clearly moved on behalf of His people to bring about His will.

Esther, an orphaned Jewish maiden, was exalted from humble beginnings to the lofty position to queen of the Persian Empire (Esth. 2:1-18), much like Joseph in Genesis 37-45. A Jewish man by the name of Mordecai, who was Esther's uncle and adoptive guardian, providentially intercepted a plot to assassinate King Ahasuerus (Esth. 2:19-22). From the beginning of the narrative, the situation looked favorable for the Jewish people.

But that picture was quickly overshadowed by the evil intent of a man named Haman, one of the kings' officials who had decided to annihilate the Jewish people (Esth. 3:1-15). Let's pick up the story and see how Haman, who wanted to humiliate Mordecai, was forced to honor him instead.

So Haman came in, and the king said to him, "What should be done to the man whom the king delights to honor?" And Haman said to himself, "Whom would the king delight to honor more than me?" And Haman said to the king, "For the man whom the king delights to honor, let royal robes be brought, which the king has worn, and the horse that the king has ridden, and on whose head a royal crown is set. And let the robes and the horse be handed over to one of the king's most noble officials. Let them dress the man whom the king delights to honor, and let them lead him on the horse through the square of the city, proclaiming before him: 'Thus shall it be done to the man whom the king delights to honor.'" Then the king said to Haman, "Hurry; take the robes and the horse, as you have said, and do so to Mordecai the Jew, who sits at the king's gate. Leave out nothing that you have mentioned." So Haman took the robes and the horse, and he dressed Mordecai and led him through the square of the city, proclaiming before him, "Thus shall it be done to the man whom the king delights to honor." (Esth. 6:6-11)

Realizing that he had not honored Mordecai for spoiling the plot against his death, the king decided to reward him. He inquired about who, in the court, might be able to give this reward. Of course, it was none other than murderous Haman, who "happened" to enter the court to ask for permission to hang Mordecai. But God was about to thwart his plans and deliver the Jews from his hands. The way these events moved in favor of Esther and Mordecai made God's providence in the situation undeniable.

모르드개를 몰아내려는 하만의 계획이 실패하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이야기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은 놀라운 우연 이상의 것으로 보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고아가 된 유대인 처녀 에스더는 창세기 37-45장의 요셉처럼 미친한 신분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라는 높은 지위로 승격되었습니다(에스 2:1-18). 에스더의 삼촌이자 양부모였던 모르드개라는 유대인 남성은 섭리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막았습니다(에스 2:19-22). 이야기의 시작부터 상황은 유대인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유대 민족을 멸절하기로 결심한 왕의 신하 중 한 명인 하만이라는 사람의 악한 의도로 인해 금세 그늘에 가려졌습니다(에스 3:1-15). 이야기를 이어가 모르드개를 모욕하고 싶었던 하만이 어떻게 그를 존귀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자 왕은 그에게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만은 속으로 "왕께서 나보다 더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이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에게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던 말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그리고 그 옷과 말은 왕의 가장 고귀한 신하 중 한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들이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의 광장으로 인도하며,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시오.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빨리 네가 말한 대로 옷과 말을 가져다가 왕의 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그렇게 하여라. 네가 말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하만이 옷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를 입히고 성의 광장으로 인도하며,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에스더 6:6-11)

왕은 모르드개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 누가 이 상을 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물론, 모르드개를 교수형에 처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려고 궁정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살인마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유대인들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것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HAMAN WAS SENTENCED TO DEATH.

Humiliation and exaltation were reversed between Haman and Mordecai. Next, this account demonstrated the reversal of judgment and salvation, as Esther once again made a bold request of the king.

Queen Esther answered, "If I have obtained your approval, my king, and if the king is pleased, spare my life—this is my request; and spare my people—this is my desire. For my people and I have been sold out to destruction, death, and extermination. If we had merely been sold as male and female slaves, I would have kept silent. Indeed, the trouble wouldn't be worth burdening the king." King Ahasuerus spoke up and asked Queen Esther, "Who is this, and where is the one who would devise such a scheme?" Esther answered, "The adversary and enemy is this evil Haman." Haman stood terrified before the king and queen. Angered by this, the king arose from where they were drinking wine and went to the palace garden. Haman remained to beg Queen Esther for his life because he realized the king was planning something terrible for him. Just as the king returned from the palace garden to the house of wine drinking, Haman was falling on the couch where Esther was reclining. The king exclaimed, "Would he actually violate the queen while I am in the palace?" As soon as the statement left the king's mouth, Haman's face was covered. Harbona, one of the royal eunuchs, said: "There is a gallows 75 feet tall at Haman's house that he made for Mordecai, who gave the report that saved the king." The king commanded, "Hang him on it." They hanged Haman on the gallows he had prepared for Mordecai. Then the king's anger subsided. (Esth. 7:3-10)

Esther risked it all, this time to save her people. Esther had to make a choice: to act or not to act. Esther decided to act and respectfully appealed to King Ahasuerus on behalf of Israel, revealing that she was of Jewish descent. Moreover, without naming the perpetrator, she uncovered a treacherous plan to annihilate her people.

The king interrupted and wanted to know who had the audacity to do such a thing. Esther revealed that it was Haman. Not only was Haman a traitor to the king, he was also an enemy of the Jews. Once the King knew Esther was Jewish, it became clear that Haman had also inadvertently threatened her life.

At that point, Haman was terrified, and rightfully so. He intended to execute his own judgment against the people of God, but God would deliver them from his hand. When Haman realized that he was caught, he desperately sought a way out, but his fate was sealed.

Haman's death sentence was an ironic example of poetic justice—he was hung on the gallows he set up for Mordecai. Haman's evil intentions were thwarted by the sovereign providence of God.

Read and consider Proverbs 5:22. How was this truth reflected in Haman's life? How does this Proverb serve as a warning for us when it comes to entertaining personal sins in our own lives?

하만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개 사이에 굴욕과 승영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어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에게 담대한 간청을 드렸을 때, 이 기록은 심판과 구원이 뒤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더 왕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허락을 받았다면, 그리고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와 제 민족은 파멸과 죽음, 그리고 몰살에 팔려 나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녀 노예로 팔렸다면, 저는 침묵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왕께 부담을 드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나서서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며, 이런 계락을 꾸민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 두려움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왕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궁궐 정원으로 갔습니다. 하만은 왕이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그곳에 남았습니다. 왕이 궁궐 정원에서 술을 마시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만은 에스더가 누워 있던 침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왕은 "내가 궁궐에 있는데 그가 정말 왕비를 범하려 하는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왕의 내시 중 한 명인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는 모르드개를 위해 세워 놓은 23미터 높이의 교수대가 있습니다. 모르드개가 왕을 구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왕은 "그를 그 교수대에 달아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개를 위해 준비해 둔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에스더 7:3-10)

에스더는 모든 것을 걸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더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행동할

것인지, 행동하지 않을 것인지. 에스더는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아하수에로스 왕에게 정중하게 호소하며 자신이 유대인 혈통임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범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몰살하려는 사악한 계락을 폭로했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말을 가로채 누가 그런 짓을 할 뻔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가 하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만은 왕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자, 하만 또한 의도치 않게 에스더의 목숨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하만은 두려움에 떨었고,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스스로 심판을 내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만의 사형 선고는 시적 정의의 아이러니한 사례였습니다. 그는 모르드개를 위해 세운 교수대에 매달렸습니다. 하만의 악한 의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좌절되었습니다.

잠언 5장 22절을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는 하만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이 잠언은 우리 삶에서 개인적인 죄를 지을 때 어떤 경고가 됩니까?

GOD'S PEOPLE EXPERIENCE VICTORY OVER THEIR ENEMIES.

Now we arrive at the climax of the story. When God's enemies thought they had finally gained domination over His people, the tables were completely turned. Instead of defeating the Israelites like they hoped, God's enemies were defeated. Because of His sovereign providence, God's people did not end up as the victims, but the victors. The enemies of the Israelites could not prevail against them.

Now in the twelfth month, which is the month of Adar, on the thirteenth day of the same, when the king's command and edict were about to be carried out, on the very day when the enemies of the Jews hoped to gain the mastery over them, the reverse occurred: the Jews gained mastery over those who hated them. The Jews gathered in their cities throughout all the provinces of King Ahasuerus to lay hands on those who sought their harm. And no one could stand against them, for the fear of them had fallen on all peoples. (Esth. 9:1-2)

Throughout the Bible, God often allowed terror to fall on the enemies of His people through changing circumstances or pow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God's hand was behind each circumstance, actively protecting and fighting for His people. The Israelites' victory over King Ahasuerus's provinces was ultimately God's victory. The hand of God is infinitely more powerful than the kingdoms of men. In the Book of Esther, God was truly shown to be the King of kings.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마침내 그분의 백성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시키는 대신, 하나님의 원수들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은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열두째 달, 곧 아달월, 그 달 열셋째 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곧 시행되려던 바로 그날, 유다 백성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고자 바랐던 바로 그 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각자의 성읍에 모여 자신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으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9:1-2)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변화하는 상황이나 권력을 통해 당신 백성의 원수들에게 공포가 탁치도록 종종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상황 뒤에 계셨고, 당신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하수에로 왕의 지방에 거둔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들의 왕국보다 무한히 강력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99 Essential Doctrines: Christ's Humiliation

Although God the Son was equal with God and worthy of all the glory God receives, He chose to humble Himself by taking on human flesh. He left His glorious state and came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Rom. 8:3), and experienced a humiliating death on a cross (Phil. 2:6-8) by becoming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2 Cor. 5:21).

99가지 필수 교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셨지만, 인간의 육신을 취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상태를 떠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롬 8:3),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겪으셨습니다(빌 2:6-8).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후 5:21).

CHRIST CONNECTION

The good news of the gospel was foreshadowed throughout this story. Esther was exalted into a high position in order to bring salvation to the Israelites, and in that high position, she was able to be an advocate for her people before the king. Doesn't that sound familiar? Jesus Christ would one day humble Himself to bring about eternal salvation to God's people, sparing them from death. In His resurrection He would be exalted, becoming their advocate before the throne of God (2 Cor. 8:9; 1 John 2:1). Jesus, even greater than Esther, didn't just risk His life, but gave His life to save His people. This is the good news of the gospel.

And with all good news, there is usually bad news. If people do not repent of sin, the story of Haman is a haunting example of what is to come. The punishment of Haman points us forward to the elimination of God's enemies and His final judgment (Rev. 20:7, 11-15; 21:8, 27). Turn today, before you are caught before the throne of God, and there is no other chance. As you see the weight of your sin, know that the grace of God in Jesus Christ is more than sufficient for your forgiveness. Sure,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God can forgive sinners like you and me. But He does. This is the great reversal of judgment and salvation.

그리스도와의 연결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 이야기 전반에 걸쳐 예시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높은 지위에 올랐고, 그 높은 지위 덕분에 왕 앞에서 백성을 위한 대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자신을 낮추시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높여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실 것입니다(고후 8:9; 요일 2:1). 에스더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목숨을 걸지 않으시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소식에는 보통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만의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예입니다. 하만의 형벌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멸절되고 그분의 최후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계 20:7, 11-15; 21:8, 27).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기 전에, 오늘 돌이키십시오.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당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용서를 위해 충분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위대한 역전입니다.

YOUR STORY 10-15 MINUTES

Group Questions

God's Story has always been designed to connect with your story. It is because of His Story that our stories make sense, have meaning, and carry on into eternity. Use the questions below to help think through how His Story connects with your own.

What can we learn from this account when it comes to trusting God in the midst of difficult circumstances? Answers will vary.

How does an eternal perspective help us persevere and trust in God while we are in the middle of tough situations? When we focus solely on our circumstances, we essentially blind ourselves to the bigger picture of what may be happening. By taking a step back and considering what God might be doing, we put ourselves in a better situation of seeing the overarching plan of God.

How does Esther's courage and willingness to take risks challenge you in your walk with Christ? Answers will vary.

What does this session teach us about humility and pride, especially as shown within the lives of Esther and Haman?

Answers will vary.

그룹 질문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당신의 이야기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는 의미를 갖고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자신의 상황에만 집중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더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에스더의 용기와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당신의 삶에 어떤 도전이 될까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이 모임은 특히 에스더와 하만의 삶에서 드러난 겸손과 교만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YOUR MISSION 10-15 MINUTES

Head

One of the things we often observe in the Bible, and even in life experience, is that God's work is most clearly seen when circumstances are at their harshest, and when we are most desperate. God calls us to look beyond earthly appearances and strength and to honor and trust Him for final victory. If God has delivered us from sin and death, a terror much greater than Haman, can we not trust Him with the uncertainties and struggles in life? If God has provided an advocate in Jesus Christ, much greater than Esther, can we not trust that He is working all things for good even if we do not see it in the moment?

In what ways can we learn to fully rely on God during difficult times? Answers will vary.

How does the promise of future victory help you deal with defeat today? Knowing the end of the story—that God will make all things new—should affect the way we handle personal defeat in our lives today.

머리말

성경에서, 심지어 삶의 경험에서도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이 가장 힘들고 우리가 가장 절박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겉모습과 힘을 넘어 최후의 승리를 위해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만보다 훨씬 더 큰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과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호자를 보내 주셨다면, 비록 우리가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 패배에 대처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야기의 결말,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개인적인 패배를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Heart

In the narrative, Haman selfishly thought the king wanted to honor him. He couldn't imagine anyone the king would want to honor more (6:6b). In redemptive history, God often exalted the humble and brought low those in high positions. In the stories of Jacob (Gen. 25:23), Gideon (Gen. 41:39-44), and David (1 Sam. 16:6-13), we see the theme of God lifting up the humble. Haman the high and wicked was brought low, while Esther, the once orphaned Jewish maiden, was elevated to be the queen of the Persian Empire.

Why does God often use the low and humble to do great and mighty things? Answers will vary.

How does this theme of “humbling those who exalt themselves” play out in other stories in Scripture? Why do you think this theme is so prominent in Scripture? Answers will vary.

마음
이야기에서 하만은 왕이 자신을 존중하기를 원한다고 이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왕이 그보다 더 존중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6:6하). 구속사에서 하나님은 종종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낮추셨습니다. 야곱(창 25:23), 기드온(창 41:39-44), 그리고 다윗(삼상 16:6-13)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주제를 봅니다. 높고 악한 하만은 낮아졌고, 한때 고아였던 유대인 처녀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높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종종 낮고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여 크고 강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낮추신다"라는 이 주제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에서 어떻게 표현되니까? 이 주제가 성경에서 그토록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Hands

God's providential hand is usually hidden from us. However, if you take the time to reflect on your life, you will see His fingerprints all over your journey. The same God who worked in the lives of Esther and Mordecai is the same God who is providentially at work in your life.

What are some modern day distractions that can prevent you from noticing God's work in your life? Social life, school, sports, and so forth.

Like Esther and Mordecai, how will you take risks in your own life for God's glory and the good of others? Answers will vary.

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대개 우리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당신의 여정 곳곳에 그분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도 섭리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사회생활, 학교, 스포츠 등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TIMELINE

Haman's Downfall

Haman's plot to destroy the Jews backfires.

Nehemiah's Prayer

God works through the prayers of His people.

The Wall is Rebuilt

God restores the surrounding wall.

The Centrality of the Word

The people gather to hear God's Word.

Shallow Worship

The people fail to give God their very best.

**Beginning Spring 2017*

From Abraham to Jesus

The arrival of the Promised One.

하만의 몰락

유대인을 멸하려는 하만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간다.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성벽이 재건되다

하나님은 주변 성벽을 회복하신다.

말씀의 중심성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다.

얇은 예배

백성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2017년 봄부터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약속된 분의 도래

ADDITIONAL INFO

Additional Resources

Check out the following additional resources:

Leader Training Videos

One Conversations

Midweek Studies (to access your Midweek Study, go to lifeway.com/TGPWIN17Dan)

Circular Timeline Poster

App (for both leader and student)

Additional suggestions for specific groups are available at GospelProject.com/AdditionalResources

And for free online training on how to lead a group visit MinistryGrid.com/web/TheGospelProject